

# Style 1 조선일보

FALL/WINTER  
2020





**기품과 품질로 이어온 타임리스 피스**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정의하는 감성의 본질은 이렇다. 단순히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훌륭한 취향과 하나가 되는 것. 브랜드의 시작은 1978년 이탈리아의 성곽 도시 페루자에 위치한 소규모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다섯 가지 색상의 캐시미어 제품을 생산하며 여성 캐시미어 브랜드를 창업한 것이 시초였다. 솔로메오 램릿 기술에 있는 중세 성을 구입해 기존 시설을 인수해 개조했고,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를 점차 확장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옷을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하고 우아한 에티튜드를 지향하며, 사회생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입고 즐길 수 있는 품격을 지닌 캐주얼 스타일을 제안한다. 몽골산 최고급 캐시미어를 기본으로 면, 실크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섬유로 만든 소재를 선별하고, 이후 숙련된 작업자들의 정교한 재단과 재봉이 이어진다. 이렇게 완성된 제

품은 솔로메오를 떠나기 전 특유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거쳐 비로소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으로 완성된다.

**인간과 자연, 예술이 살아숨쉬는 솔로메오**  
이탈리아 페루자 근처 작은 도시 솔로메오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이곳에서 모든 순간을 함께해왔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오래된 성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이곳은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에 영감을 준다. 정갈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솔로메오 본사에서 직원들은 커다란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만끽하며 작업에 열중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다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마을 사람들 중 다수가 솔로메오에서 근무할 정도로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사람들에게 삶 자체이자 일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인간미 넘치는 근무 환경에서 작업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든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인간성 없는 어떤 품질도 있을 수 없다'는 창립자 브루넬로 쿠치넬



1 전통에 기반한 심미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솔로메오 초기 작업장. 2 문화, 예술, 전통, 역사를 아우르는 이상적인 장소인 램릿 기술. 3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윤리에 기반한 경영 철학으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창립자 브루넬로 쿠치넬리. 4 오버사이즈 셔츠와 팬츠 등 남성복을 관능적으로 재해석한 여성 컬렉션. 5 남성 체형을 강조한 블레이저와 편안한 핏을 살린 팬츠로 재탄생하는 세련된 도시 남성상. 6 원사부터 패브릭에 이르기까지 최상 품질의 기운이 되는 소재 선별. 7 숙련된 기술자들과 함께 수준 높은 매뉴팩처 체계를 구축하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8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아우러진 솔로메오 본사. 9 태입러링과 그레이딩 등 다양한 수법이 이루어지는 솔로메오 램릿 예술공예학교. 10 일체적인 부클레 소재가 돋보이는 여성 아우터웨어. 11 부드러운 니트 가족으로 완성한 레더 재킷과 캐시미어 니트, 코듀로이 팬츠로 완성한 캐주얼 스타일.

# the spirit of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취향과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휴머니즘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전통과 기술에 대한 진정성,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오늘.



리의 철학과 휴머니즘적 이념에서 비롯된 것. 이와 같이 제품에 깃든 좋은 에너지는 착용자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수작업과 장인 정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단순히 전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삶의 접근법을 전한다. 이를 위한 브랜드의 지속적인 노력은 브루넬로 & 페데라가 쿠치넬리 재단 설립에서도 엿볼 수 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2010년 인문학적 이념을 실천하고 이를 전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 문화와 예술,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에서는 이탈리아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유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한다. 솔로메오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시행된 많은 프로젝트가 재단의 포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 옛 크래프트맨십을 재발견하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이를 전수하기 위해 솔로메오 램릿 예술공예학교를 설립하기도. 여기서는 패턴 메이킹에서 테일러링, 수선, 니트 제작, 원예업 등 다양한 과목을 다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는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상징적인 장인 정신과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 가치를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둔다.



**시간과 장소,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데일리 럭셔리**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이탈리아 대표 클래식 스타일로 대변되는 장인 정신, 다양한 상황과 격에 맞는 에티튜드와 세련미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컬렉션을 큐레이션한다. 1년에 두 차례, F/W(가을, 겨울)와 S/S(봄, 여름) 시즌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비즈니스와 워크엔드웨어 모두 포함하는 클래식한 매력의 레저웨어다. 몽골에 위치한 생산지에서 직접 기운 캐시미어 상양의 부드러운 원사 등 최상의 소재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과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은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현대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색감이 짙은 그레이와 블루 컬러, 초경량 원단, 드로스트링(drawstring)같이 실용적인 디테일로 도시적인 터치를 기미한 것이 특징이며, 혁신적인 신소재와 최고급 천연섬유의 조화가 돋보인다. 완벽하게 재단·재봉한 테일러드 재킷, 캐주얼, 플랫 립, 잉글리시 립 스티칭 등 전통적인 패턴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니트 톱, 스포티한 매력의 다운 패딩과 데님 팬츠,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조합한 멋스럽고 실용적인 캐주얼 스니커즈까지, 폭넓은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여성 컬렉션은 불필요한 디테일은 과감히 생략해 단정한 팬츠 수트, 오버사이즈 실루엣 등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템을 바탕으로 볼륨감과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디테일을 살려 관능적인 멋을 더한다. 퀴스티에나 패브릭 벨트로 허리 라인을 강조한 포멀한 수트, 플리츠로 극대화한 여성스러운 장식이 대표적이다. 플로럴 모티브와 섬세한 디그레이드 효과를 적용한 벨, 섬세한 울 소재와 엠보싱 텍스처가 수공예적 매력과 가치를 보여준다. 의상만큼이나 세련되고 매력적인 '데이 백'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급 가죽으로 제작해 부드럽고 견고하며 특유의 모달리 장식을 적용해 상징성을 더했다. 승마에서 영감을 얻은 첼시 부츠는 모든 룩에 강인하고 세련된 매력을 부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from Solomeo to Seoul

이탈리언 클래식의 세련되고 우아한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뉴 컬렉션으로 단장한 특별한 공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photographed by kang pilmo



## 공간과 경험에 이르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단순히 일회성 소비가 아닌 휴머니즘적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캐시미어 니트를 기반으로 활용도 높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아이템을 선보이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의 철학과 이탈리언 클래식, 그리고 서울의 모던한 감성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보리와 베이지, 내추럴 우드 톤을 중심으로 한 외관과 깔끔한 내부에서 브랜드 특유의 품격이 느껴진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으로 연출한 외관을 지나 매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비얀코와 우드 등 고급 소재로 완성한 내부 공간이 펼쳐진다. 풍요롭고 따뜻한 감성으로 꾸민 공간은 오픈 아이보리 프레임과 나무 바닥, 원목 진열장이 편안하고 단정한 인상을 전한다. 이탈리아 브랜드 바이버주노에서 제작 및 디렉팅을 맡아 완성한 조명이 말끔한 건축적 요소와 함께 친근하고 여유로운 면서도 아늑한 쇼핑 공간을 완성했다. 곳곳에 배치한 소파, 카펫, 쿠션은 브루넬로 쿠치넬리 본사인 솔로메오에서 직접 제작한 패브릭을 입힌



아이템들이다. 고쳐 쓰며 대물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Repairing and Handing Down'이라는 글귀가 쓰인 액자와 함께 정갈하게 디스플레이 된 제품들이 시선을 이끈다. 이 글귀는 전통과 현대, 패션과 문화를 잇는 소중한 가치를 표현한 것. 철학을 담은 오브제와 가구, 조명 등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여성·남성 컬렉션을 비롯해 키즈 라인과 홈웨어 컬렉션까지 여유롭게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 문화적인 감성에 기반한, 쇼핑에 최적화된 장소

건축물부터 인테리어 디테일까지 브랜드의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청담 전문점에서는 의류 컬렉션은 물론 백과 슈즈 컬렉션, 액세서리 라인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먼저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여성 컬렉션 제품이 메인으로 전시되어 있다. 정교한 재단과 단정한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클래식한 남성복을 관능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시즌 컬렉션이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테일러링 슈트에서 캐주얼 재킷, 실용적인 스니커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아이템 구성이 돋보이는 남성 컬렉션이 펼쳐지며,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도시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컬렉션이 자리한다. 우아하면서도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의상과 아이템은 이탈리아 감성으로 꾸민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접 입어보고 마음껏 경험해볼 수 있다.

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국내 단독으로 키즈 라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키즈 라인의 경우 자연과의 호모니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성·남성 컬렉션에서 구현하는 솔로메오 매뉴팩처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캐시미어, 코듀로이 등 고급 소재로 완성한 니트웨어부터 아우터웨어, 트래블웨어, 모자, 장갑, 운동화, 양말 등 토털 컬렉션으로 구성했으며, 4세에서 12세 어린이를 위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브랜드 고유의 품격이 담긴 멋스러운 공간에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해보자. 문의 02-3448-2931 에디터 **이유이**



1 청담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외관. 2 자연스럽고 따뜻한 색감으로 꾸민 2020 FW 여성 컬렉션. 3 의류부터 가방, 슈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 여성 컬렉션을 메인으로 소개하는 1층 공간. 4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대체로운 남성 컬렉션. 5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다양한 스니커즈 컬렉션이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2층. 6 오직 청담 전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키즈 라인은 여성 컬렉션과 함께 자리한다. 7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현대 도시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남성 컬렉션.





깔끔한 실루엣의 투 버튼 캐시미어 코트, 곱감을 실려 직조한 캐시미어 니트 롱과 팬츠, 부드러운 양털을 싣은 듯한 디자인의 스웨이드 스니커즈, 카프 레더 글러브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Timeless

Grace

부드럽고 잔잔한 10월의 가을바람을 소재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캐시미어. 최상의 소재와 흐르는 듯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에 집중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2020 F/W 컬렉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kim cham



밍크 피로 포인트를 준 크듀로이 블루종, 울과 캐시미어를 혼합한 화이트 재킷, 울과 캐시미어를 더해 직조한 니트 롱, 넉넉한 핏의 데님 팬츠, 카프 레더 앵클부츠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얇은 모직 천을 주입리로 장식한  
 햇, 알파카 모헤어 니트 롬,  
 무릎 길이 의올 맨츠, 카프 리더  
 부티 힐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부피가 크지 않되 가벼운 롬 패딩 장미, 알파카 터틀넥 롬, 벨트로 코인 트롬 존  
 아이웨어 스트 크로트 맨츠, 스웨이드 스니커즈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코듀로이 햇, 니켈트 후드 배딩 베이스트, 코튼과 캐시미어를 혼용한 장미 장미와 맨츠,  
 화이트 자지 롬, 기능성 러너 스니커즈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는 코듀로이 투 버튼 코트, 알파카 울과 캐시미어 혼방 니트, 데님 팬츠, 레더 슈즈, 카본 레더 브리프케이스 모두 브루넬로 루치넬리.



안경을 빼서 차려입을 땀에도 맞도록 핏 스킨 수트 블라우스, 와이프 레디 벨트, 실크와 자ize를 혼성한 슈트브리스틀, 꽃무늬를 수놓은 힐 스카프, 카본 레더 앵글부츠 모두 브루넬로 루치넬리.



적당한 볼륨감에 가볍고 따뜻한 후드 패딩 점퍼, 알파카 플란넬 스트라이프 재킷, 모헤어와 울을 혼방한 니트 블, 울 데님 팬츠 모두 브루넬로 루치넬리.



가볍고 부드러운 시어링  
롱 코트, 울 체크 재킷, 산호상  
죽은 캐시미어 터틀넥 등, 플란넬  
울 배기 팬츠, 카프 레더 앵클부츠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코듀로이 후드 패딩 장미,  
알파카 울과 캐시미어를 혼방한  
하이넥 니트 등, 화이트 캐버딘 팬츠,  
레더 슈즈, 카프 레더 백팩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문의 02-3448-2331

헤어 이메뉴  
메이저인 오기영  
모델 Ella Zadavysvychka,  
Adrian Santiago  
에디터 장라윤  
아시스턴트 조소희





(왼쪽부터) 길이 조절 가능한 핸들 스트랩,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인 누백 레더 토트백, 가로 소재 레더 위어를 다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스니커즈, 벨벳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게 마감 처리한 누백 레더 토트백, 내구성이 뛰어난 린스톡 나일론과 스웨이드, 니파 레더를 혼용한 예술레터 무드 스니커즈, 모달리 장시 텡(tongue)으로 포인트를 준 러너 스니커즈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톤온톤의 스웨이드 트리밍과 편직 장식으로 캐주얼 무드를 강조한 천연 가죽 소재 스니커즈, 버니시드(burnished) 레더 고유의 자연스러운 텍스처와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스니커즈,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하는 가벼운 러버 아웃솔, 견고하고 장식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워셔드 스웨이드 소재 로퍼 스니커즈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 elegant modernity

아시아 대표 조소희

전통적인 이탈리아인 핸드크래프트 노하우와 혁신적인 소재의 조화로 빛어낸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2020 F/W 백 &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브랜드의 시그니처 비즈 장식인 모날리(monili) 밴딩 디테일로 우아함을 강조한 카프 레더 부티 힐, 고급스러운 크로커다일 엠보싱 카프 레더 슬더백, 매달려있는 집안 처리가 돋보이는 마그네틱 클로저 호보백, 발등의 모날리 디테일이 감각적인 포인트로 플레이, 날렵한 실루엣이 카프 레더 앵클부츠, 지퍼 클로저를 다한 매달려 카프 레더 슬더백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왼쪽부터) 기능성 테크노 원단, 힐-리프 원단, 스웨이드 트리밍이 아우라진 러너 스니커즈, 탄력성이 뛰어난 먼 니트 소재가 발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일체형 러너 스니커즈, 대체로운 신소재를 적용, 트랜드리한 동사에 클래식한 예술레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초경량 스니커즈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에디터 이해미



11월 15일 10:00 | 11월 16일 10:00 | 11월 17일 10:00 | 11월 18일 10:00 | 11월 19일 10:00 | 11월 20일 10:00 | 11월 21일 10:00 | 11월 22일 10:00 | 11월 23일 10:00 | 11월 24일 10:00 | 11월 25일 10:00 | 11월 26일 10:00 | 11월 27일 10:00 | 11월 28일 10:00 | 11월 29일 10:00 | 11월 30일 10:00 | 12월 1일 10:00 | 12월 2일 10:00 | 12월 3일 10:00 | 12월 4일 10:00 | 12월 5일 10:00 | 12월 6일 10:00 | 12월 7일 10:00 | 12월 8일 10:00 | 12월 9일 10:00 | 12월 10일 10:00 | 12월 11일 10:00 | 12월 12일 10:00 | 12월 13일 10:00 | 12월 14일 10:00 | 12월 15일 10:00 | 12월 16일 10:00 | 12월 17일 10:00 | 12월 18일 10:00 | 12월 19일 10:00 | 12월 20일 10:00 | 12월 21일 10:00 | 12월 22일 10:00 | 12월 23일 10:00 | 12월 24일 10:00 | 12월 25일 10:00 | 12월 26일 10:00 | 12월 27일 10:00 | 12월 28일 10:00 | 12월 29일 10:00 | 12월 30일 10:00 | 1월 1일 10:00 | 1월 2일 10:00 | 1월 3일 10:00 | 1월 4일 10:00 | 1월 5일 10:00 | 1월 6일 10:00 | 1월 7일 10:00 | 1월 8일 10:00 | 1월 9일 10:00 | 1월 10일 10:00 | 1월 11일 10:00 | 1월 12일 10:00 | 1월 13일 10:00 | 1월 14일 10:00 | 1월 15일 10:00 | 1월 16일 10:00 | 1월 17일 10:00 | 1월 18일 10:00 | 1월 19일 10:00 | 1월 20일 10:00 | 1월 21일 10:00 | 1월 22일 10:00 | 1월 23일 10:00 | 1월 24일 10:00 | 1월 25일 10:00 | 1월 26일 10:00 | 1월 27일 10:00 | 1월 28일 10:00 | 1월 29일 10:00 | 1월 30일 10:00 | 2월 1일 10:00 | 2월 2일 10:00 | 2월 3일 10:00 | 2월 4일 10:00 | 2월 5일 10:00 | 2월 6일 10:00 | 2월 7일 10:00 | 2월 8일 10:00 | 2월 9일 10:00 | 2월 10일 10:00 | 2월 11일 10:00 | 2월 12일 10:00 | 2월 13일 10:00 | 2월 14일 10:00 | 2월 15일 10:00 | 2월 16일 10:00 | 2월 17일 10:00 | 2월 18일 10:00 | 2월 19일 10:00 | 2월 20일 10:00 | 2월 21일 10:00 | 2월 22일 10:00 | 2월 23일 10:00 | 2월 24일 10:00 | 2월 25일 10:00 | 2월 26일 10:00 | 2월 27일 10:00 | 2월 28일 10:00 | 2월 29일 10:00 | 2월 30일 10:00 | 3월 1일 10:00 | 3월 2일 10:00 | 3월 3일 10:00 | 3월 4일 10:00 | 3월 5일 10:00 | 3월 6일 10:00 | 3월 7일 10:00 | 3월 8일 10:00 | 3월 9일 10:00 | 3월 10일 10:00 | 3월 11일 10:00 | 3월 12일 10:00 | 3월 13일 10:00 | 3월 14일 10:00 | 3월 15일 10:00 | 3월 16일 10:00 | 3월 17일 10:00 | 3월 18일 10:00 | 3월 19일 10:00 | 3월 20일 10:00 | 3월 21일 10:00 | 3월 22일 10:00 | 3월 23일 10:00 | 3월 24일 10:00 | 3월 25일 10:00 | 3월 26일 10:00 | 3월 27일 10:00 | 3월 28일 10:00 | 3월 29일 10:00 | 3월 30일 10:00 | 3월 31일 10:00 | 4월 1일 10:00 | 4월 2일 10:00 | 4월 3일 10:00 | 4월 4일 10:00 | 4월 5일 10:00 | 4월 6일 10:00 | 4월 7일 10:00 | 4월 8일 10:00 | 4월 9일 10:00 | 4월 10일 10:00 | 4월 11일 10:00 | 4월 12일 10:00 | 4월 13일 10:00 | 4월 14일 10:00 | 4월 15일 10:00 | 4월 16일 10:00 | 4월 17일 10:00 | 4월 18일 10:00 | 4월 19일 10:00 | 4월 20일 10:00 | 4월 21일 10:00 | 4월 22일 10:00 | 4월 23일 10:00 | 4월 24일 10:00 | 4월 25일 10:00 | 4월 26일 10:00 | 4월 27일 10:00 | 4월 28일 10:00 | 4월 29일 10:00 | 4월 30일 10:00 | 5월 1일 10:00 | 5월 2일 10:00 | 5월 3일 10:00 | 5월 4일 10:00 | 5월 5일 10:00 | 5월 6일 10:00 | 5월 7일 10:00 | 5월 8일 10:00 | 5월 9일 10:00 | 5월 10일 10:00 | 5월 11일 10:00 | 5월 12일 10:00 | 5월 13일 10:00 | 5월 14일 10:00 | 5월 15일 10:00 | 5월 16일 10:00 | 5월 17일 10:00 | 5월 18일 10:00 | 5월 19일 10:00 | 5월 20일 10:00 | 5월 21일 10:00 | 5월 22일 10:00 | 5월 23일 10:00 | 5월 24일 10:00 | 5월 25일 10:00 | 5월 26일 10:00 | 5월 27일 10:00 | 5월 28일 10:00 | 5월 29일 10:00 | 5월 30일 10:00 | 5월 31일 10:00 | 6월 1일 10:00 | 6월 2일 10:00 | 6월 3일 10:00 | 6월 4일 10:00 | 6월 5일 10:00 | 6월 6일 10:00 | 6월 7일 10:00 | 6월 8일 10:00 | 6월 9일 10:00 | 6월 10일 10:00 | 6월 11일 10:00 | 6월 12일 10:00 | 6월 13일 10:00 | 6월 14일 10:00 | 6월 15일 10:00 | 6월 16일 10:00 | 6월 17일 10:00 | 6월 18일 10:00 | 6월 19일 10:00 | 6월 20일 10:00 | 6월 21일 10:00 | 6월 22일 10:00 | 6월 23일 10:00 | 6월 24일 10:00 | 6월 25일 10:00 | 6월 26일 10:00 | 6월 27일 10:00 | 6월 28일 10:00 | 6월 29일 10:00 | 6월 30일 10:00 | 7월 1일 10:00 | 7월 2일 10:00 | 7월 3일 10:00 | 7월 4일 10:00 | 7월 5일 10:00 | 7월 6일 10:00 | 7월 7일 10:00 | 7월 8일 10:00 | 7월 9일 10:00 | 7월 10일 10:00 | 7월 11일 10:00 | 7월 12일 10:00 | 7월 13일 10:00 | 7월 14일 10:00 | 7월 15일 10:00 | 7월 16일 10:00 | 7월 17일 10:00 | 7월 18일 10:00 | 7월 19일 10:00 | 7월 20일 10:00 | 7월 21일 10:00 | 7월 22일 10:00 | 7월 23일 10:00 | 7월 24일 10:00 | 7월 25일 10:00 | 7월 26일 10:00 | 7월 27일 10:00 | 7월 28일 10:00 | 7월 29일 10:00 | 7월 30일 10:00 | 7월 31일 10:00 | 8월 1일 10:00 | 8월 2일 10:00 | 8월 3일 10:00 | 8월 4일 10:00 | 8월 5일 10:00 | 8월 6일 10:00 | 8월 7일 10:00 | 8월 8일 10:00 | 8월 9일 10:00 | 8월 10일 10:00 | 8월 11일 10:00 | 8월 12일 10:00 | 8월 13일 10:00 | 8월 14일 10:00 | 8월 15일 10:00 | 8월 16일 10:00 | 8월 17일 10:00 | 8월 18일 10:00 | 8월 19일 10:00 | 8월 20일 10:00 | 8월 21일 10:00 | 8월 22일 10:00 | 8월 23일 10:00 | 8월 24일 10:00 | 8월 25일 10:00 | 8월 26일 10:00 | 8월 27일 10:00 | 8월 28일 10:00 | 8월 29일 10:00 | 8월 30일 10:00 | 8월 31일 10:00 | 9월 1일 10:00 | 9월 2일 10:00 | 9월 3일 10:00 | 9월 4일 10:00 | 9월 5일 10:00 | 9월 6일 10:00 | 9월 7일 10:00 | 9월 8일 10:00 | 9월 9일 10:00 | 9월 10일 10:00 | 9월 11일 10:00 | 9월 12일 10:00 | 9월 13일 10:00 | 9월 14일 10:00 | 9월 15일 10:00 | 9월 16일 10:00 | 9월 17일 10:00 | 9월 18일 10:00 | 9월 19일 10:00 | 9월 20일 10:00 | 9월 21일 10:00 | 9월 22일 10:00 | 9월 23일 10:00 | 9월 24일 10:00 | 9월 25일 10:00 | 9월 26일 10:00 | 9월 27일 10:00 | 9월 28일 10:00 | 9월 29일 10:00 | 9월 30일 10:00 | 10월 1일 10:00 | 10월 2일 10:00 | 10월 3일 10:00 | 10월 4일 10:00 | 10월 5일 10:00 | 10월 6일 10:00 | 10월 7일 10:00 | 10월 8일 10:00 | 10월 9일 10:00 | 10월 10일 10:00 | 10월 11일 10:00 | 10월 12일 10:00 | 10월 13일 10:00 | 10월 14일 10:00 | 10월 15일 10:00 | 10월 16일 10:00 | 10월 17일 10:00 | 10월 18일 10:00 | 10월 19일 10:00 | 10월 20일 10:00 | 10월 21일 10:00 | 10월 22일 10:00 | 10월 23일 10:00 | 10월 24일 10:00 | 10월 25일 10:00 | 10월 26일 10:00 | 10월 27일 10:00 | 10월 28일 10:00 | 10월 29일 10:00 | 10월 30일 10:00 | 10월 31일 10:00 | 11월 1일 10:00 | 11월 2일 10:00 | 11월 3일 10:00 | 11월 4일 10:00 | 11월 5일 10:00 | 11월 6일 10:00 | 11월 7일 10:00 | 11월 8일 10:00 | 11월 9일 10:00 | 11월 10일 10:00 | 11월 11일 10:00 | 11월 12일 10:00 | 11월 13일 10:00 | 11월 14일 10:00 | 11월 15일 10:00 | 11월 16일 10:00 | 11월 17일 10:00 | 11월 18일 10:00 | 11월 19일 10:00 | 11월 20일 10:00 | 11월 21일 10:00 | 11월 22일 10:00 | 11월 23일 10:00 | 11월 24일 10:00 | 11월 25일 10:00 | 11월 26일 10:00 | 11월 27일 10:00 | 11월 28일 10:00 | 11월 29일 10:00 | 11월 30일 10:00 | 12월 1일 10:00 | 12월 2일 10:00 | 12월 3일 10:00 | 12월 4일 10:00 | 12월 5일 10:00 | 12월 6일 10:00 | 12월 7일 10:00 | 12월 8일 10:00 | 12월 9일 10:00 | 12월 10일 10:00 | 12월 11일 10:00 | 12월 12일 10:00 | 12월 13일 10:00 | 12월 14일 10:00 | 12월 15일 10:00 | 12월 16일 10:00 | 12월 17일 10:00 | 12월 18일 10:00 | 12월 19일 10:00 | 12월 20일 10:00 | 12월 21일 10:00 | 12월 22일 10:00 | 12월 23일 10:00 | 12월 24일 10:00 | 12월 25일 10:00 | 12월 26일 10:00 | 12월 27일 10:00 | 12월 28일 10:00 | 12월 29일 10:00 | 12월 30일 10:00 | 12월 31일 10:00





# BRUNELLO CUCINELLI

*From here on, I would like to resume the journey  
towards Universal Humanism*

